

광주FC, 새 시즌 첫 상대는 수원FC

한국프로축구연맹, 2025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일정 발표

ACLE 돌풍 주역 자신감...2월15일 홈 개막전 축포 쏘다 이정호·김은중, 젊은 감독 '지략대결' 또다른 관전포인트

광주FC가 수원FC와의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5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0일 2025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1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일정을 발표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부터 승격팀 FC안양까지 총 12개 팀이 K리그1에 참가하며 정규라운드에선 팀당 33경기씩, 총 198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돌풍의 주역 광주FC는 2월 15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리그 5위를 기록한 수원FC와 맞대결을 펼친다.

'정효볼' 이정호 광주FC감독과 팀을 5위로

끌어 올린 김은중 수원FC감독의 젊은 사령관간 지략대결이 또다른 관전포인트다.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2패 후 1승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1시 포항스틸야드에서는 포항스틸러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이, 3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제주 SK FC와 서울FC가 각각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창단 1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1부 리그로 승격한 FC안양은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 K리그1 최강 울산HD와 울산 문수구장에서 K리그1 데뷔전에 나선다.

거스 포엣 감독 체제로 새 출발을 선언한 전북 현대는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와 맞대결을 펼친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올 시즌에도 계속된다.

팀당 1회씩 총 12번의 금요일 야간경기를 개최한다.

첫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5월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 HD와 광주FC의 경기와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포항스틸러스와 김천 상무의 경기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K리그1 일정은 2024-2025 ACLE와 ACL2 참가팀의 상위 토너먼트 진출 여부와 울산의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참가에 따라 해당 팀 경기가 순연될 수 있다.

정규라운드 33라운드를 마친 뒤 파이널라운드 6경기를 치른다. 파이널라운드 경기 일정은 정규라운드 끝난 뒤 공개된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새해 첫 대회 우승

세계랭킹 2위 왕즈이 완파...말레이시아오픈 2연패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2-0(21-17 21-7)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지난해 11월24일 끝난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에서 파리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7주 만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아울러 안세영은 지난해에 이어 말레이시아오픈 2연패도 달성했다.

지난달 14일 연간 왕중왕전 격인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준결승전에서 왕즈이에게 탈미를 잡혀 결승 진출이 불발됐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선 완벽하게 실속했다.

안세영은 첫 번째 게임 초반 왕즈이와 엇치락뒤치락하다가 8-11에서 무려 9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며 흐름을 바꿔 21-17로 승리했다.

이어진 2게임에선 6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이어간 끝에 압승을 거두며 45분 만에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2일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를 꺾고 우승을 확정짓고 후 포효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여수 진남유도장과 나주 국제사격장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유도(왼쪽)와 사격 꿈나무 선수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2024년 사격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기간: 2025년 1월 6일 ~ 1월 19일 장소: 전남국제사격장 주최: 유도·사격 대회조직위원회 후원: 전남체육진흥재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유도·사격 차세대 주역들 전남 동계전지훈련 구슬땀

여수 진남유도장·나주 국제사격장서 태극마크 향한 뜨거운 열정 “전남을 동계전지훈련 메카로”...전남도체육회, 전지훈련 총력

한국 유도와 사격을 빛낼 차세대 주역들이 전남을 찾아 태극마크를 향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12일 “유도 꿈나무 대표팀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여수 진남유도장에서, 사격 꿈나무대표팀은 6일부터 19일까지 나주 국제종합사격장에서 각각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도 꿈나무대표팀 훈련에는 임희대 국가대표팀 감독과 지도자 7명, 32

명의 유소년 선수가 참가했다.

훈련은 체력훈련과 기술 향상, 전술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주기적인 체력과 기술 테스트를 추가해 각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격 꿈나무대표팀 훈련은 박희복(대전대신고) 전남지도자를 중심으로 소총에 이희석·김성호·정연화 코치, 권종에 김정안·김아름·이주영 코치 등 전남지도자 6명과,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권총선수 20명, 소총선수 17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훈련은 기본기술과 사격이론 습득, 전자 장비를 통한 과학적 훈련, 실전과 같은 기록 측정, 집중력 및 멘탈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유도, 사격 꿈나무대표팀 전남 전지훈련은 앞으로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계스포츠 전지훈련 메카를 꿈꾸는 전남도체육회는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표팀 훈련 프로그램을 매칭해 전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전남 방문을 환영하며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한 전남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은 민상기(왼쪽)와 이재환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영건·베테랑' 조화...전력 업그레이드

'완성형 스트라이커' 이재환 '베테랑 수비수' 민상기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유망주와 베테랑 수비수를 영입, 전력을 강화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타이밍을 뺏는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10일 연령별 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이재환(18), 중앙 수비수 민상기와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생 공격수 이재환은 광성중 3학년 재학 당시 리그 12골로 K리그 주니어 A조 전반기 득점왕을 차지하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2023년 AFC U-17 아시안컵에 발탁돼 팀 준우승에 기여했다. 2024년에는 전반기 전국 고등 축구왕왕전에는 득점왕과 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주목받았다.

이재환은 191cm·82kg의 체격을 바탕으로 문전 앞에서 파괴적인 면모를 보이는 중앙 공격수이며,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우수해 완성형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통한 드리블이 강점이며 상대

의 타이밍을 뺏는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상기는 데뷔 초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2013년 본격적인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경기를 소화했고, 2022년 팀의 주장을 역임하기도 하며 K리그 정장급 수비수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후 2023년 부산아이파크, 2024년 포항스틸러스를 거친 민상기는 프로 통산 230경기 4골 1도움을 기록 중인 베테랑이다.

민상기는 안정적인 대인 수비와 노련한 운영 능력으로 수비진을 이끌 수 있는 선수이며, 과감한 롱패스로 전방까지 공을 연결할 수 있는 빌드업 능력 이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환은 “광주에서 프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고 공격포인트 10개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며 “팬분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상기도 “광주라는 트렌디한 전술을 선도하는 구단에서 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의 축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광주도시공사 안지현이 12일 열린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점프 슈트 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실책에 '발목'...날아간 연습

광주도시공사, 강호 삼척시청전 26-29 패배

광주도시공사가 2강으로 꼽히는 삼척시청의 속공에 무너졌다.

광주도시공사는 12일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3매치 데이 경기에서 삼척시청에게 29-26, 3점차 패배를 당했다.

연승에 도전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잦은 범실에 발목이 잡히며 1승 2패(승점 2점)로 6위에 머물렀다.

전반전은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속에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14-14로 전반을 마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시작과 함께 연속 범실과 두터운 삼척시청 수비진에 고전하며 내리 4실점, 분위기를 내주며 끌려갔다.

골키퍼 이민지의 세이브와 김지현과 서아루의 골로 20-18로 추격한 광주도시공사는 실책으로 다시 22-18, 4골 차로 벌어졌다.

22-20, 2골 차로 따라붙은 광주도시공사는 실책과 박세영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더 이상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6-29, 3점차 패배를 떠안았다.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이 6골, 정현희가 5골, 서아루와 김수민이 4골씩 넣으며 공격을 주도했고, 이민지 골키퍼가 10세이브로 골문을 지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5일 인천시청을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시즌 2승째에 재도전한다. /박희중 기자